

日本文學作品名*

-近代小說名을 中心으로-

許 晁 會**

目 次

- I. 序論
 - II. 時代別 作品狀況
 - III. 主題別 分類
 - (1) 人間 (2) 人名 (3) 地名 (4) 自然現象 (5) 記(帳) (6) 其他
 - IV. 表記 및 形態別 分類
 - (1) 字種 (2) 形態
 - V. 結論
-

I. 序論

明治時代(1868~1912)부터 昭和時代(1926~1989)에 이르기까지 日本文學作品名중에서 事典에 나와 있는 411편을 對象으로 하였다. 文學作品이라하면 記錄·評伝·評論·戯曲·詩集·句集·隨筆集·논픽션등도 포함되나 本稿에서는 近代小說名을 주로 다루었다. 여기에는 長·短篇小說은 물론이거니와 『會津土魂』(1971、早乙女貢作)의 長篇歷史小說이나 『あ・うん』(1980、向田邦子作)의 脚本、『澁江抽齋』(1916、森鷗外)의 史伝小說、『日本捕虜志』(1958、長谷川伸)의 史伝体小說、『旋風時代』(1926~33、田中貢太郎)의 歷史小說、『隼別王子の判亂』(1975~6、田辺聖子)의 時代小說、『孤愁の岸』(1962、杉本苑子)의 長篇時代小說、『注文の多い料理店』(1924、宮澤賢治)의 童話、『安吾捕物帖』(1950~52、坂口安吾)의 連作集、『あめりか物語』(1908、永井荷風)의 短篇小說集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分類方法은 新版日本名作事典(2000、平凡社)에 따랐다. 本論에서는 時代別로 日本文學作品을 나누어서 그 背景을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主題別(分野別)로 分類해 時代別 變遷도 그림으로 나타냈다. 시대별 분류에 있어서는 학자에 따라 昭和時代를 戰前·戰中·戰後로 나누거나 昭和10年代·20年代·30年代...와 같이 10年씩 끊기도 하지만 本稿에서는 時代的·社會的背景을 감안하여 戰前을 初期、戰後 15年間을 中期、日本

* 이 論文은 2002年度 韓밭대학교 校內學術研究費에 의해 研究되었음

** 韓밭大學校 敎授 日本學

1) 以下 作家名 뒤에 作 생략

經濟의 高度成長期인 60年代와 70年代의 中반까지를 後期、나머지 기간을 末期로 區分했다. 또한 자주 사용되어지는 字와 함께 字種을 구분지어 그 時代的 變遷도 그림에 담았으며 形態別 區分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일련의 研究를 통하여 社會言語學속의 네이밍實態를 밝혀 나가고자 한다.

II. 時代別 作品狀況

<表>

	1期	2期	3期	4期	5期	計
日本年號	明治·大正期	昭和初期	昭和中期	昭和後期	昭和末期	
西紀年代	1868~1925	1926~1945	1946~1960	1961~1975	1976~1989	
作品數字	83	81	114	87	46	411

(1) 1期

旧体制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민사회를 지향한 明治初期의 근대화, 그 문명개화의 흐름은 서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翻譯文學이 성행하게 되고 民權運動과 이에 호응한 政治小說이 유행을 탄다. 淸日戰爭 후에는 현실을 깊이 바라보는 觀念小說이 나타나는데 이는 반봉건적 사회모순을 지적하는 作品들이다. 大正期는 反自然主義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에 의해 전개되어 永井荷風·谷崎潤一郎 등을 중심으로 耽美主義文學이 개화한다. 第1次 世界大戰이 끝나고 大正民主主義에 접어들면서 武者小路實篤·志賀直哉 등의 이상주의 경향은 윤리적이며 理知的인 作品을 쓴 夏目漱石나 森鷗外文學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편의상 1期는 明治·大正期、2期를 - 第2次 世界大戰까지 - 昭和前期、大戰後 15年間을 中期、1961년부터 1975年 사이를 後期、그리고 1976년부터 昭和時代가 끝나는 1989年 까지를 昭和末期로 구분했다.

(2) 2期

日本の 이 時期는 1945年の 敗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전쟁기였다. 1931年の 이른바 滿洲事變의 발발을 계기로 국가의 통제가 가해지고 정치적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거거서 살아남기 위해 轉向文學으로 변모해간다. 共產黨의 최고 지도자였던 佐野學 등이 옥중에서 共產主義 포기 성명을 내자 轉向者가 속출하였다. 轉向文學이란 이러한 轉向 作家들의 고뇌를 그린 作品으로 轉向文學에 私小說風의 作品이 많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1930年代 中반에 접어들면 近代文學의 기초인 개인주의 사상은 전체주의·국가주의 사상에 위축당해 文學精神은 허탈상태에 빠지게 된다. 敗戰前까지 이 時代는 정부의 命에 의

해 各種 文學團體가 日本報國文學會로 통일을 보게 된다. 1935년에 창설된 芥川賞과 直木賞은 文藝復興의 일익을 담당, 많은 新人 作家들의 등장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33년에는 『文學界』가 創刊되어 文藝復興에 일조를 하였다.

(3) 3期

戰爭의 종결로 인해 文學界도 해방된다. 낡은 것의 부활과 새로운 것의 生長 이와 같은 움직임은 크게 傳統文化派·民主主義 文學派·戰後派라는 세 갈래의 흐름을 형성한다. 이 시기는 사상의 대립으로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내분이 그치지 않았다. 그러한 戰後 혼란세대는 風俗小説로 묘사되기도 했다. 戰後派의 作家들은 戰爭의 어두운 골짜기를 체험한 경험을 가지고 既成文學과는 다른 차원에서 文學의 출발을 한다. 1946년 문예잡지 『近代文學』이 창간되고 左翼文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개인적인 주체성을 중시하는 것을 根本精神으로 하여 作品活動을 했다. 이 『近代文學』에 지원받는 형태로 등장한 것이 戰後派이다. 日本 浪漫派의 영향을 받은 三島由紀夫는 前後文學의 傑作이라 불리는 『金閣寺』(1956)를 발표했다. 이 시기에 石原愼太郎·大江健三郎·開高健 등이 등장해 안정 무드 속에서 강렬한 개성을 발휘했다.

(4) 4期

1969년, 예술적 근대파에 속하면서 新感覺派 논의에 있어 매우 충격적이던 川端康成에게 東洋에서는 타골에 이어 두 번째로 노벨文學賞이 수여되었다. 이는 近代 叙情文學의 古典이라 불리는 『雪國』을 비롯한 그의 作品이 日本的인 美의 세계를 그린 것으로 평가되며 日本文學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고조되었고 日本文學의 翻譯作品이 해외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엔 純文學의 변질도 논의 되었고 中間小説의 유행은 SF小説이나 推理小説 등으로 文壇을 변모시키며 다양성을 띠게 된다.

1960年代의 이른바 安保鬪爭 이후 대학분쟁이 일어나는 등 격동의 70년대를 맞은 現代文學은 文學家의 정치적·사회적 자세가 문제되는 가운데 『豊饒の海』를 遺作으로 한 三島由紀夫의 죽음과 행동, 노벨文學賞 作家 川端康成의 자살 등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5) 5期

1970年代 중반부터의 昭和末期는 戰後에 출생한 작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신세대의 감각이 靑野聰와 宮内藤典 등에 의해 표현되고, 도시화 되어 가는 상황은 中上健次와 立松和平 등에 의해 그려졌다. 특히 中上健次の 『枯木灘』은 억압된 에너지의 분출을 육체와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문체로 그려내어 긴밀한 이야기 세계를 창출해 내었다. 한편 村上龍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풍속과 감각을, 村上春樹는 도시인의 억압된 수치

를, 島田雅彦은 무의미와 유희적인 감성을 그려내었다. 그 중에서도 村上春樹는 SF적인 상상력을 구사하기고 하고 『ノルウェイの森』에서는 죽음을 통과의례로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²⁾. 女流作家인 吉本ばな나는 劇化的인 터치로 사물을 묘사해 젊은이들의 지지를 얻었으며, 외국에서도 번역되어 많은 독자를 얻었다.

Ⅲ. 主題別 分類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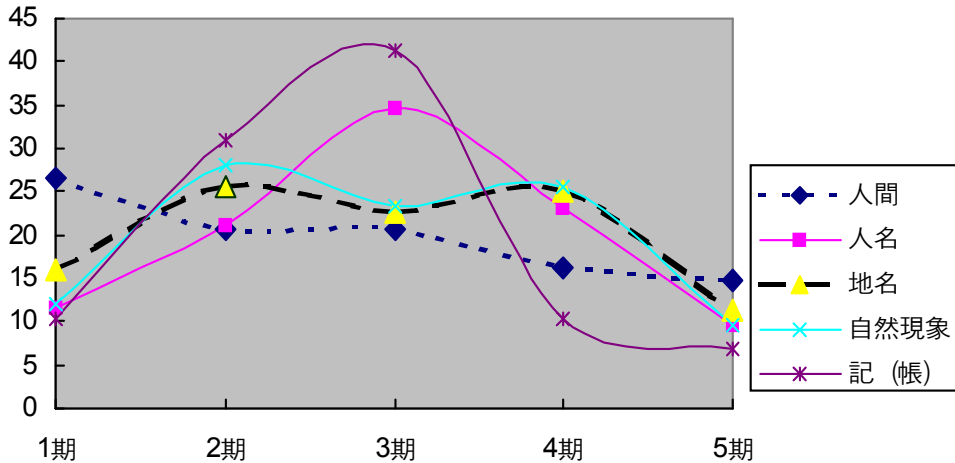
順位	分野	編數와 比率	作品名(年度)	作家
1	人間	68(16.5%)	人間の條件 (1956~58)	五味川純平
			坊っちゃん (1906)	夏目漱石
2	人名	52(12.7%)	秀吉と利休 (1962~63)	野上弥生子
			李陵 (1943)	中島敦
3	地名(國名)	44(10.7%)	銀座八丁 (1934)	武田麟太郎
			日本アパッチ族 (1963)	小松左京
4	自然現象(四季)	43(10.5%)	細雪 (1943~48)	谷崎潤一郎
			夏の花 (1947)	原民喜
5	記(帳)	25(6.1%)	放浪記 (1928~48)	林芙美子
			柳生武芸帳 (1956~58)	五味康祐

1888年 林芙美子の『浮雲』에서부터 最近의 『永遠の都』(加賀乙彦에 이르기까지 日本文學作品名 411을 主題(分野)別로 나누어 보면 人間이나 人、婦、夫婦、夫人、良人、者、男、女、坊っちゃん、子 등 사람과 관련된 것이 68例³⁾로 16.5%이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 『菜穂子』(1941、堀辰雄)와 같이 52로 12.7%를 차지했다. 그들이 거처하는 곳의 地域과 마을 혹은 거리이름이 44로 10.7%、사람이 생을 영위하는데 있어 일어나는 온갖 自然現象이 43、10.5%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봄·여름·가을·겨울 등의 四季가 포함되며 月·山·川·海·風·雨·雪등을 가르킨다. 『~記』는 25、6.1%이며 『或る小倉日記伝』(1952、松本清張)의 日記나 傳·帳도 이 범주에 넣었다. 이 分類는 日本文學作品의 구체적 내용과는 별도로 어디까지나 作品名만을 對象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테마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이 일숙(2000.3) 『시대별 일본문학사』 도서출판 계명, pp 230 - 231

3) 以下 數字 다음의 例 省略

< 그림1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과 관련된 人間은 明治·大正時代인 1期 이후 계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나 人名의 경우에는 3期인 昭和中期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期에서 2期로 점점 올라가 정점인 3期 이후 다시 4期를 거쳐 5기로 내려가는 역V 자형은 人名과 記(帳)에서 비슷한 모양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自然現象과 地名은 거의 M자형으로 그려졌다. 主題(分野)의 時代的 變遷을 살펴 볼 때 1期에서는 人間이 주된 관심사였으며 昭和初期인 2期에서는 自然現象이, 戰後 3期에서는 그 전쟁에 대한 記錄인 記(帳)와 그 사람들의 人名이 각각 41.4%와 34.6%로 文學作品名에 많이 쓰였다. 昭和末期인 5期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수치가 15%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作品名도 5개 분야에 대한 차이가 7%에 지나지 않는 등 점차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人間

사람과 관련되어지는 人間에선 역시 『竹澤先生と云ふ人』(1924、長与善郎) 『海に生くる人々』 등 人이 8例、人間 그대로가 『人間のいとなみ』(1986、青野聰) 『人間の運命』(1962~68、芹澤光治) 등 5、다음으로 『大地の子』(1987~91、山崎豊子)의 子、『或る女』(1919、有島武郎)의 女가 각각 5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眞珠夫人』(1920、菊地寛)의 夫人、『華岡青洲の妻』(1967、有吉佐和子)의 妻、『人造美人』(1961、星新一)의 美人、『踊子』(1946、永井荷風)의 踊子 등 女子를 표현한 것이 8이다. 女는 『四千万歩の男』(1990、井上ひさし)의 男 2 보다 많이 쓰이고 있다. 女가 많이 등장한 곳은 日本歌謠曲의 曲名⁴⁾으로 1057曲中 38曲、3.6%에 이른다.

(2) 人名

『次郎物語』(1936~54, 下村湖人)의 次郎나 『晶子曼陀羅』(1954, 佐藤春夫)의 晶子등 일반적인 이름과 歷史上 인물로 나눌 수 있다. 『西郷隆盛』(1961, 海音寺潮五郎), 『龍馬がゆく』(1962, 司馬遼太郎) 『小説渡辺崋山』(1971, 杉浦明平)의 西郷隆盛⁵⁾·坂本龍馬⁶⁾·渡辺崋山⁷⁾이 그들이다. 외국사람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폴레옹 『ナポレオン狂』(1978, 阿刀田高)이나 예수 그리스도 『燒跡のイエス』(1946, 石川淳도 들어있다.

(3) 地名

地名하면 역시 大阪나 東京가 빠지지 않아 『大阪の宿』(1925~26, 水上龍太郎) 『淺草紅団』(1920~30, 川端康成)부터 막연히 都市를 나타내는 都會 『都會の憂鬱』(1922, 佐藤春夫)나 古都 『古都』(1961~62, 川端康成)도 보이며 이러한 大都市 보다는 한층 작은 村 『南小泉村』(1909, 眞山靑果)이나 町 『抹香町』(1950, 川崎長太郎)도 8씩 동등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 옛 地名도 『越前竹人形』(1963, 水上勉)에서 보듯 7로 大都市나 작은 동네·거리·舊地名 등이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하면 日本 『日本捕虜志』(1958, 長谷川伸)등의 國名이 6에 外國國名 『ヒルマの堅琴』(1947~48, 竹山道雄)과 外國都市名 『上海』(1928~31, 横山利一)도 쓰고 있다

(4) 自然現象

自然現象에 있어서는 『風の歌を聽け』(1979, 村上春樹)등 바람과 관계된 것이 9, 해와 연관된 것이 『天の川の太陽』(1976~79, 黒岩重吾)등 6, 夜는 『暗夜行路』(1921~37, 志賀直哉)등 6, 계절을 표현한 것이 『歸らざる夏』(1973, 加賀彦彦)등 여름이 5로 겨울 2보다 많아 여름을 선호하고 있다. 구름 『坂の上の雲』(1968~72, 司馬遼太郎)과 비 『雨やどり』(1974, 半村良), 별 『如何なる星の下に』(1939~40, 高見順)이 3씩으로 나타났다

4) 拙稿 「日本歌謠曲の曲名」 『日本研究』 第3輯 日本研究所, 1996.8 pp43-58

5) 西郷隆盛(1827~1877); 徳川幕府를 전복시킨 明治維新의 지도자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 후 자신이 옹립한 천황정부의 취약점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王政復古에 참가하여 큰 공을 세움으로써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다. 王政復古로 인해 자신이 속한 사무라이 계급이 몰락하게 된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6) 坂本龍馬(1835~1867); 江戸時代(1602~1868) 末期의 존왕파 志士 1862년 江戸로 가서 개국론의 옹호자인 勝海舟를 암살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에게 설득 당했다. 勝가 설립한 해군조선소에 그의 부관으로 입소했으며 그를 통해 새로운 정치형태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1866年 京都에서 薩長同盟을 맺어 幕府打倒運動의 적극적인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坂本는 京都에서 幕府지지자에게 暗殺당했다.

7) 渡辺崋山 (1793~1841): 인물의 성격을 잘 나타낸 초상화를 많이 그렸으나 日本美術에 서양화 원근을 도입하는 서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유명하다. 三河의 영주를 섬기던 중인 1832年 江戸로 가 중요한 직책을 맡았으며 주로 해안방어를 담당했다. 그는 徳川幕府의 엄격한 鎖國政策에 반대했다가 큰 수난을 겪었다.

(5) 記(帳)

무엇인가를 글로 남기고 기록해둔다는 의미를 띠는 記(日記·帳)는 『眞田太平記』(1974~82、池波正太) 時期別로 10% - 31% - 41% - 10% - 7%로 戰後인 3期에 가장 높았으나 근래에 와서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갈수록 문명의 이기가 발달함에 따라 전자계산기나 전자수첩·PC·휴대폰 사용의 급증가로 인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日記 『或る小倉日記伝』(1952、松本清張)은 두 作品에서 볼 수 있다.

(6) 其他

앞의 5分類외에 많이 사용 되어진 字로는 海가 『エデンの海』(1947~47、若杉慧)등 10、川이 『橋のない川』(1961~92、住井すゑ)등 8、船이 『高瀬船』(1916、森鷗外)등 7、夢이 『夢の碑』(1976、高井有一)등 6、物語가 『青べか物語』(1960、山本周五郎)등 6、山이 『山の民』(1938~40、江馬修)등 5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이 바다로 둘러 싸여 배가 발달하고 산과 강이 많은 일본의 地形·地理的 特徵이 잘 나타나 있으며 그 山河에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인 것이다. 『富士に立つ影』(1924~26、白井喬二)의 富士는 日本 全역에서 가장 많은 分野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動物園의 動物이름(愛稱)에서는 사자·코끼리·원숭이 수컷에 富士 또는 フジ를 붙였으며 日本會社名(商號)에서는 日本과 東洋 다음으로 富士가 세 번째 順位였다. 4年制大學에서도 東京富士大學(東京)·富士大學(岩手)·富士常葉大學 静岡 등 세 곳에서, 신문명 『夕刊フジ』에도 나타나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만날 수 있다. 또한 『櫻桃』(1948、太宰治)·『櫻島』(1946、梅崎春夫)의 櫻은 映畫名「櫻の國」(1990)、歌謠名「同期の櫻」(1972)、會社名「さくらや」、大學名「名櫻大學」(沖繩)、動物園의 動物이름(愛稱)에서도 쓰이고 있어 富士가 있는 곳이라면 사쿠라도 따라다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동물이름에서는 침팬지나 사자 그리고 일본 원숭이에게 「さくら」란 이름이 붙었으나 이 「さくら」는 모두 암컷에게만 한정된 것이 흥미롭다.

IV. 表記 및 形態別 分類

(1) 字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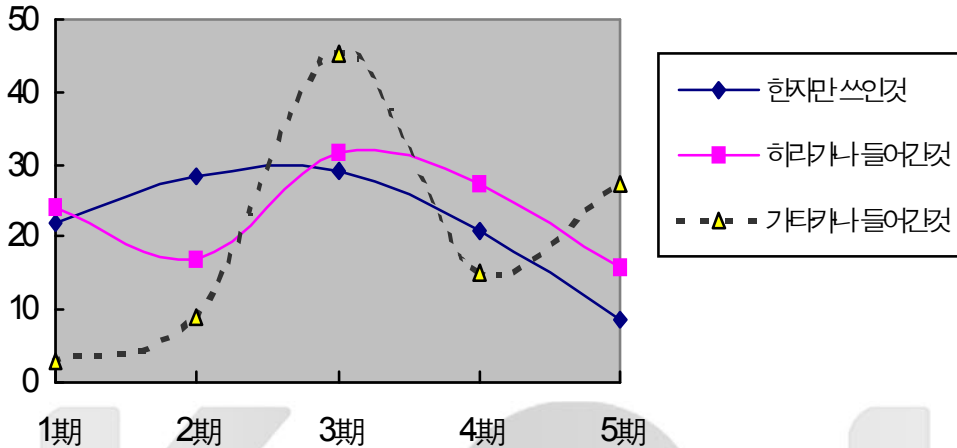
<表3>

	作品名 (年度)	作家	作品名 (年度)	作家
漢字 (183)	眞實一路 (1935~36)	山本有三	羅生門 (1915)	芥川龍之介
漢字+ひらがな (179)	御宿かわせみ (1973~)	平岩弓枝	雨やどり (1974)	半村良
漢字+カタカナ (25)	ハコネ用水 (1951)	タカクラ・テル	レイテ戦記 (1967~69)	大岡昇平
ひ+カ+漢字 (13)	キャラメル工場から (1928)	佐多稻子	ノルウェイの森 (1987)	村上春樹
ひらがな (9)	あらくれ (1915)	徳田秋聲	ひかりごけ (1954)	武田泰淳
カタカナ (6)	カクテル・パーティー (1967)	大城立廣	バルタイ (1960)	倉橋由美子

日本文學作品名에 있어表記는 字種을 가르키며 漢字、가타카나、히라가나、이들의 混用、로마자와 숫자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漢字만으로 되어있는 作品名이 183、전체 411 중 22.5%가 된다. 『海と毒藥』(1957、遠藤周作)처럼 漢字와 漢字를 と로 연결해준 것이 6、『暗殺の年輪』(1973、藤澤周平)와 같이 漢字와 漢字사이에 の가 들어간 것이 68、이 모두를 합치면 257로 전체의 62.5%나 된다. 여기에 漢字가 한글자라도 들어 간 것은 395로 무려 96.1%에 달해 作品名에 漢字가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おはん』(1947~57、宇野千代)처럼 히라가나만으로 쓰인 것은 9、『僕って何』(1977、三田誠廣)와 같이 히라가나가 한 글자라도 들어간 것이 191、전체의 46.5%로 作品名에서는 漢字 다음으로 히라가나 쓰임새가 높았다. 가타카나만으로는 『キッチン』(1987、吉本ばなな)등 6、가타카나가 일부라도 들어간 것은 『ノルウェイの森』(1987、村上春樹)등 46이며 가타카나와 히라가나만으로 쓰여진 것은 『さようなら、ギャングたち』(1981、高橋源一郎)등 두 作品이었다. 『HIROSHIMA』(1982、小田寛)등 세 곳에서는 로마자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모두 1980年代 作品들이다

<그림 2> 字種의 時代別 變遷

<그림2>



字種의 時代別 變遷은 <그림2>에서 보는데로 漢字만으로 쓰인 경우는 4期까지 20%대로 꾸준히 사용되다가 5期들어 8.7%에 머물러 급감하고 있다. 가타카나는 한글자라도 들어 있는 것이 1·2期에선 10%에도 못 미치다가 戰後인 3期에서 갑자기 45.5%로 치솟았다. 이는 終戰과 함께 日本에 7년간 주둔한 美國의 GHQ(군정사령부) 영향으로 사회 곳곳에서 外來語 表記가 늘어난 것으로 볼수 있다. 가타카나는 4期에서 15%로 내려갔고 5期에서는 27%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히라가나가 한글자라도 들어있는 것은 2期에서 17%로 낮아졌다가 3期때 32%로 올라가더니 4·5期엔 하강곡선을 긋는 모양이 漢字와 닮은 꼴이다. 5期는 가타가나 상승과 漢字·히라가나의 동반 부진이 확연히 나타났다.

(2) 形態(品詞)

『太平天國』(1979, 陣舜臣)·『侍』(1980, 遠藤周作)·『米路』(1948~56, 野上弥生子) 등의 명사나 『田沼意次』(1982~84, 村上元三)등 固有名詞, 『歌のわかれ』(1939, 中村重治)·『夏の終り』(1962, 瀬戸内晴美) 등의 名詞形으로 끝나는 作品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名詞形에 이어 形容詞나 形容動詞에 의한 連体形이 『冷い夏, 熱い夏』(1984, 吉村昭), 『僕たちの好きな戦争』(1986, 小林信彦)등 14이다. 動詞의 ~て形은 『子をつれて』(1918, 葛西善藏)등에서 3, ~た形은 『樅の木は残った』(1954~56, 山本周五郎) 등 4, 動詞의 辭書形은 『月に泣く』(1986, 丸山健二)·『流れる』(1955, 幸田文) 등 13이었다 『歸らざる 夏』(1973, 加賀乙彦)에서처럼 否定表現의 否定形이 4, 『下天は夢か』(1986~89, 津

本陽)의 疑問形이 4, 『新しい人よ眼ざめよ』(1983、大江健三郎)의 命令形이 4로 나타났다. 動詞의 過去形이 4인데 비해 現在形은 『ノンちゃん雲に乗る』(1947、石井桃子)등 21로 『性に眼める頃』(1919、室生犀星)처럼 連体形으로 쓰이는 動詞 14도 포함된다. 敬語가 발달된 日本에서 文學作品名에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 受動形이나 假定形·使役形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命令形은 『新しい人よ眼ざめよ』(1983、大江健三郎)등 5기때 두 곳에서 쓰이고 있다.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의 경우 『カクテル・パーティ』(1967、大城立裕)등 7곳에 쓰고 있으나 『新・平家物語』(1950~57、吉川英治)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타카나에서 사용되어졌다. 省略「、」가 들어간 題名은 『装いせよ、わが魂よ』(1982、高橋たか子)등 3例 모두 5기에 쓰였다.

V. 結論

1888年代부터 1989年의 昭和時代가 끝날 때까지 『新版ポケット日本名作事典』에 수록된 400編에 1976年 이후의 11편을 더해⁸⁾ 時代別로 5기로 나누었고 昭和期는 初期·中期·後期·末期로 구분했다. 作品數는 3期인 昭和中期(1946~1960)때 가장 많아 활발한 作品活動을 선보이고 있다. 主題(分野)別로 보았을 때는 1위인 人間(人)이 16.5%、2위 人名 12.6%、3위 地名(國名) 10.7%、4 위 自然現象(四季) 10.5%、5위 諷刺(日記)·帳는 6.1%로 나타나 文學作品名의 주된 관심사는 人間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다. 그 人間은 나를 중심으로 한 家族·주위사람·백성·왕자·무사·천재 등이 포함되며 人名은 성과 이름을 따로, 혹은 같이 쓰기도 한다. 유명 외국인은 물론 聖者도 등장하며 역사서에 늘 나오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이름의 匹夫匹女도 많다. 人間을 가장 많이 다룬 곳은 日本의 TV드라마名⁹⁾으로 35.8%였으며 日本의 映畫名이 23.8%로 그 뒤를 이었다. 人名도 TV드라마名이 18.5%로 제일 높았고 日本會社社名이 14.0%、日本의 映畫名 11.1%의 순으로 쓰였다. TV드라마와 映畫에서 人間과 人名이 많이 나타난 이유는 原作을 小説에서 취한 때문이기도 하다. 地名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곳은 大學名으로 日本의 大學에서 地名이 차지하는 비중은 國立 97%、公立 100%、私立 61%에 달하고 있다. 大學名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地名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日本의 新聞社名은 10社中 9社 꼴로、日本의 上場會社 4社中 1社는 地名을 택하고 있어 이 地名이야말로 命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日本歌謠曲의 曲名 1059曲중에서 地名이 들어간 162曲(15.3%)과 映畫名

8) 昭和時代는 事典에 35편밖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다른 시기와 작품 숫자가 너무 많은 차이나, 日本文芸年報에서 11편을 더해 숫자를 조절했다.

9) 拙稿 「日本のTVドラマ名」 『比較文化研究』 No.57、2002.6. pp33-45 以下 拙稿 「日本の映畫名·會社名·大學名·新聞名」은 注 省略

에서 7.5%를 차지한 地名은 드라마명에서 46%로 낮았다 이런 地名이 들어있는 드라마명은 TV시청자들의 채널선정에서 큰 인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字種의 時代別 變遷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第2次 世界大戰이 끝난 후인 3期에서 갑자기 가타카나 사용이 많아졌고 이 현상은 歌謠曲의 曲名에서도 마찬가지로 역V자형으로 나타난 점이다. TV드라마명은 완만한 상승의 바가지형이었으나 映畫名에서는 明治·大正期부터 昭和末期까지 계단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었다. 漢字 사용이 1期부터 5期까지 차례로 내려가는 계단형인 것은 映畫·드라마·作品名에서 공통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비례해 가타카나만으로 쓰인 것과 로마자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다. 가타카나만으로 쓰여진 것은 4期和 5기가 각각 절반씩이었으며 로마자만 사용된 것은 『HIROSHIMA』(1982)·『TUGUMI』(1989)등 5기뿐이었다. 히라가나뿐인 것은 오히려 1기가 4, 2期和 3기가 2씩, 5期에서 1로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추세대로 라면 日本文學作品名은 대세를 이루었던 漢字와 漢字+히라가나 사용이 줄어드는 대신 가타가나와 로마자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독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小説名이라면 日本의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이름 富士와 櫻을 地名이나 人名으로 생각해보고 로마자와 가타카나를 잘 조합해 「·」나 「、」의 符號도 넣으면 효과적일 것이다.

【參考文獻】

- 고재석/김호소마사오 외 (1998) 『일본현대문학사』 (주)문학과 지성사, pp1-10
- 고재석/김환기/중광 中村光夫(2001) 『일본메이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pp239-282
- 고재석/김환기/중광 白井吉見(2001) 『일본다이쇼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pp51-269
- 고재석/김환기/중광 平野謙(2001) 『일본쇼와문학사』 동국대학교출판부, pp272-322
- 申鉉夏(2000) 『개정판 日本文學史』 도서출판 보고사, pp204-242
- 이일숙(2000) 『시대별 일본문학사』 도서출판 계명, pp212-233
- 정인문(2001) 『일본근대문학사의 재인식』 도서출판 영한, pp17-33
- 安藤貞之(1988) 『ネーミングは招き猫』 タヴィット社, pp73-94
- 池田末則(1992) 『地名風土記』 東洋書院, pp42-50
- 池田良孝(1999) 『ニックネーム20世紀の100人』 東京書籍, pp167-186
- 市右貞次外2人(1988) 『日本文學概論』 秀英出版, pp225-227
- 奥野健男(1995) 『日本文學史』 中公新書, pp218-256
- 小田切進(2000) 『日本名作事典』 平凡社, pp2-14
- 久保田淳外2人(1987) 『新選日本文學史』, pp141-183

- ・清水義範(1999)『名前がいっぱい』新潮文庫、pp35-58
- ・壽岳章子(1990)『日本人の名前』大修館書店、pp210-225
- ・竹盛天雄・稻賀散二監修(1983)『簡明日本文学史』第一學習社、pp90-111
- ・田中克彦(1997)『名前と人間』岩波新書、pp169-196
- ・長谷川泉外6人(1990)『新編日本文学史』、pp144-158
- ・森岡健二・山口仲美(1985)『命名の言語学』東海大學出版會、pp87-110
- ・日本實業出版社編(1996)『秀作ネーミング事典』日本實業出版社、pp156-176

K C I

要 旨

明治時代から現代に至るまで日本文學作品名のうち、名作・傑作として世に知られている411編をその対象にした。文學作品の中から記録・評伝・戯曲・詩集・歌集・句集・隨筆集・ノンフィクションなど削除し、小説名を主に扱った。そこには長・短編小説はもちろん長編歴史小説や脚本・史伝小説・史伝体小説・時代小説・童話・連作集・短編小説集などが含まれる。

本稿では時代別に日本文學作品を5期に分けてその背景や状況を調べてみた。1888年の『浮雲』から昭和末の『永遠の都』まで日本の文學作品を主題(分野)別に分けてみると人・男・女・子・者など人間に係わるものが16.5%、その人々を具体的に表したのが、12.7%を占めている。彼らの住んでいる地域や村、または町の名が10.7%、四季・月・山・川・海・風・雨・雪などの自然現象が10.5%、～記・日記(伝)は3.3%であった。

表記は字種のことであって漢字・カタカナ・ひらがな・これらの混用・ローマ字等を指す。作品名に漢字が一字でも入っているのは395例で全体の96.1%に達し、漢字の役割は實に大きいと言わざるを得ない。ひらがなを使ったのは46.5%で半分以下であった。これはカタカナの使用率1.2%よりはかなり高い数値で作品名は漢字とひらがなの構成が一般的になっている。5期の昭和末期に入ってはローマ字やカタカナだけの名が目立ち、徐々に増え始めている。形態別にみると、名詞と固有名詞の名詞形で終わる名が90%を超えている。

このようなことから今後、讀者を引き付けるためには彼らにアピールできるようローマ字を使ったリ、外來語のカタカナ表記をしたり、符号「・」・「、」を入れたりして目に付きやすく、憶えやすく工夫をこらさなければならない。

キーワード：人間・人名、地名・國名、記・帳、小説作品、字種、形態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305-719)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42-821-1350
e-mail : herhh@hanbat.ac.kr